『발해, 문명의 빛을 찾아서』 서평 | 10면 문화

30여 년 동안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오가며 유라시아 역사를 연구해 온 강인욱(역사학) 교수의 신간 『발해, 문명의 빛을 찾아서—강인욱의 유라시아 빅히스토리』가 지난 30일 출간됐다. 강 교수는 이번 책을 통해 발해를 한·중 역사 갈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거대한 유라시아 역사 속에서 발해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프랑스 거리 시위, 학교 봉쇄에 교환학생도 영향 | 9면 지역사회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된 대규모 시위로 현지 교환학생들의 수업과 일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신문은 우리학교 교환학생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환경 악화와 생활비 부담 등 시위의 배경 및 향후 프랑스 사회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제 1770 호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대학주보



서울캠 선본 anKHor(앵커)는 타전공 P/NP 평가 확대 · 교양 과목 전면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박류빈 기자)

언론 3사 주최 총학생회 후보 공청회
'대학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 확대'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 오늘부터 사흘간 양 캠퍼스(양캠) 총학생회 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를 앞두고 지난주 열린 후보자 공청회에서 국제캠 KHORD(코드) 선본과 서울캠 anKHor(앵커) 선본은 공약을 밝혔다. 두 선본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양쪽 모두 공약한 등록금 심의 절차와 총장 선임제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밝힌 구체적인 방안을 비교했다.

국제캠 선본 KHORD(코드)
수강신청 마일리지제 개선 · 양캠 학문 단위 재배치 공약

국제캠 공청회는 지난 16일 국제경영대학관에서 진행됐다. 공청회는 코드 선본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후보자 공약 설명, 언론사 및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코드 선본은 2027학년도 1학기 도입 예정인 수강신청 마일리지제 개선을 공약했다. 학생들은 '희망 과목담기' 기간에 수강 희망 과목에 마일리지를 배분하며, 신청 인원이 학년별 정원 이내일 경우 신청자 전원의 수강이 확정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면 마일리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 30%만 수강이 확정되기에 이때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해당 과목의 남은 자리를 두고 본 수강신청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학생의 이중 수강신청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묻자 김민성(골프산업학 2022) 정후보는 "30%라는 숫자는 너무 적다"며 "늦어도 2027학년도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생 의견을 수렴해 대학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코드 선본은 양캠 학문 단위 재배치도 공약했다. 과거 학문 단위 재조정 당시 교수진과 일부 단과대학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김정후보는 "가능성을 본다기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보고 있다"며 "저희가 추진할 일은 검토를 공식 협의에 올리고 대학의 판단 근거와 학생 의견의 반영 결과를 공개하는 데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민 부후보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경우 양 캠퍼스 학생 대표와 대학 관련 부서가 먼저 실무 협의를 시작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선본 anKHor(앵커)
타전공 P/NP 확대 · 교양 과목 전면 절대평가 전환 공약

서울캠 공청회는 지난 19일 오비스홀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앵커 선본이 정견을 발표하고 학내 언론 3사가 제시한 키워드에 답했다. 2부는 언론사 및 방청객 질의응답,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된 다전공 의무 이수제와 관련, 앵커 선본은 온라인 강의 확대를 통해 강좌를 증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본부와 단과대학이 이미 온라인 강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학의 역할을 묻자 최지현(정치외교학 2023) 정후보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의 증설을 원하는지 조사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전공 선수과목의 온라인 강의 개설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강좌 증설과 교원 확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 참여 예산제가 도입되면 다전공 수강 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

양캠퍼스 총투표 23일~25일

오채원 기자 chaewonnida@khu.ac.kr

2027학년도 양 캠퍼스 학생회 총선거 투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서울캠은 온·오프라인과 QR 투표를 병행한다. 국제캠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구에는 각각 한 개의 선거운동본부(선본)가 등록했다.

서울캠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받았다. 선거운동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투표는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투표 기간이 하루 연장되며, 최대 이틀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선거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자체 징계와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히 한 개정 선거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총학생회장 후보로 최지현(정치외교학 2023) 씨가,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김대현(경제학 2022) 씨가 '앵커' 선본 소속으로 출마했다.

서울캠 중선관위 신창훈(행정학 2021)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대해 "잠깐의 고민과 선택이 내년 한 해 경희의 변화로 이어지니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로 학생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국제캠은 지난 2일 총선거를 공고하고, 9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받았다.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다.

총학생회·특별대표기구·단과대학 선거 투표일은 23일부터 사흘간, 전공·학과 선거는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총학생회장 후보 김민성(골프산업학 2022) 씨가, 부총학생회장 후보 민병훈(국제학 2025) 씨가 '코드' 선본 소속으로 출마했다.